

제주 과밀학급 비율 전국 최고 수준

안민석 의원, 2020·2021년 과밀학급 비율 분석 결과 2021년 학급당 학생 28명 이상 학급 37%... 전국 2위 과밀학교 비율도 12.8%... 경기 다음으로 심각 수준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초·중·고 전체 23만3345개 학급 중 5만4050학급(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만3616학급), 서울(6243학급), 경남(3371학급)순이었다.

제주지역은 2021년 과밀학급 수가 초등학교 477학급, 중학교 462학급, 고등학교 295학급 등 총 1233학급이었다. 제주지역 과밀학급 비율은 37%로, 경기(40.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제주의 과밀학급 비율은 2020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 제주지역 과밀학급은 초등학교 633학급, 중학교 442학급, 고등학교 306학급 등 총 1381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42.8%를 차지했다. 1년 사이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156학급, 고등학교는 11학급이 줄어 교육당국의 대책이 효과를 본 측면도 있지만 중학교는 오히려 20학급이 늘면서 더 면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과밀학교 비율도 12.8%로 나타나 경기(19.7%) 다음으로 심각했다. 안 의원은 "학생 수 감축은 미래 교육의 질과 직결된 교육계 시급한 현안"이라며 "학생 안전과 교육 여건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 12호 태풍 간접 영향... 내일까지 비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1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30~100mm(많은 곳 산지 120mm 이상)인데, 13일까지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이번 비는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몰고온 난기와 북서쪽에서 내려온 건조공기가 만나 발생한 비구름의 영향 때문이다. 아울러 태풍 무이파의 영향반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람도

13일부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아울러 제14호 태풍 '난마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압부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열대저압부는 14일에서 15일 사이 태풍으로의 발전 및 북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4℃, 낮 최고기온은 25~27℃로 예상됐다. 14일에는 아침 최저기온 24~25℃, 낮 최고기온 28~29℃로 기온이 다소 오르겠다. 송은범기자

제주 '전기화재' 비율 전국 최상위

최근 5년간 700건 발생 전체 화재의 26.4% 차지

제주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상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올해 7월) 제주에서 발생한 전기화재는 700건이다. 이는 전체 화재 2647건 가운데 26.4%에 달하는 수치로, 인천(27.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

율이다. 연도별 전기화재 건수·피해액을 보면 2018년 168건·7억288만원, 2019년 146건·6억7431만원, 2020년 137건·11억1063만원, 지난해 152건·16억9432건 등이다. 발생 건수는 줄지 않는 반면 피해액은 증가 추세다. 이상섭 의원은 "전기용품이나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화재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 개선 등을 통해 합선 등 주요 전기화재 원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한담해안산책로에서 즐기는 제주바다 12일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안산책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청정 제주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추석 연휴 사건·사고 잇따라 추락사망사고·화재·야생버섯 중독 등

112 신고·교통사고는 줄어 추석 연휴 기간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2시54분쯤 제주시 이도2동 이도광장교차로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 교체 작업을 하던 A(20대)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당시 17m 높이의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석날인 10일 0시16분쯤에는 제주시 함림읍 대림리 소재 음식점에서 불이 나 23분 만에 진압됐다. 이날 화재로 음식점 내부와 냉장고 등이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157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송은범기자

이와 같은 날 오후 7시54분쯤 제주시 봉개동 번영로상에서 야생버섯을 섭취한 A(37·여)씨가 복통과 설사, 구토 증세를 일으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신고 40여분 후인 오후 8시33분쯤엔 A씨의 부모와 남동생도 동일한 증상을 일으켜 모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올 추석 연휴 112신고와 교통사고 발생은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접수된 112신고 건수는 일 평균 990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1018건에 비해 2.8% 줄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15건이 발생했는데 전년 50건에 비해 70%나 줄었다. 송은범기자

제주 코로나 확진자 200명대로

추석연휴 검사량 감소 기인 12일 기준 격리환자 3237명

추석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감소하면서 제주지역 하루 확진자가 200명대를 기록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하루동안 도내에서는 287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32만8613명으로 늘었다. 도내 신규 확진자 발생 추세는

지난 7일 723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발생 현황은 총 3844명이 발생했고 전주 대비 2960명이 감소했다. 이는 추석 연휴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기준 도내서 격리중인 환자는 3237명이며 이중 위중증 환자는 없다. 병상 가동률은 13.27%를 보이고 있으며 도내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86.9%를 기록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 선발 제주대학교 원서접수 13~17일

제주대학교는 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수시모집 인원은 2023학년도 전체 선발 인원인 2461명의 66.8%에 해당하는 1644명이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일반 학생, 지역인재, 고른기회) 920명

(37.4%) ▷학생부종합(일반학생, 소프트웨어인재, 사회통합, 고른기회, 농어촌학생, 특성학교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 재직자) 648명(26.3%) ▷실기/실적(일반학생, 체육특기자) 76명(3.1%)이다. 또 학생부종합 전형 중 평생학습자 전형은 야간 행정학과와 야간 경영학과에 한해 약간명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2022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상윤기자



서귀포시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

청정 자연과 건강한 삶,
행복 서귀포시의 근원입니다.

더 나은 서귀포시를 만들어가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시정방침

- 행복한 민생복지
- 튼튼한 산업육성
- 다양한 문화융성
- 깨끗한 청정환경

Jeju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